

새 책

▶제주기행-키워드 읽는 탐라학 개론(주강현 지음)=2011년 나온 초판본을 개정증보한 '결정판본'이다. 40년 전부터 제주와 인연을 맺은 저자는 제주의 표피가 아니라 원형질에 근접하길 희망하며 섬의 바람, 돌, 여자, 잡녀, 굴, 돌담, 꽃자왈, 테우리, 우영팻, 표류, 해금과 유배 등을 키워드로 섬의 DNA를 압축했다. 도서출판 각. 2만5000원.



▶스토리 동의보감(박정복 지음)=제주 출신 저자로 '동의보감' 속 이야기를 찾아냈다. '시작하라, 두려움 없이'에서 '옥지에서 나는 변소 냄새'까지 30편을 통해 어떤 일로 병이 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치유되는지를 다뤘다. 벌레(충)들을 하나의 생명체로 대하는 태도 등 인간이 만물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야 할지 일러준다. 북드라방. 1만3000원.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제주 여행(황윤 지음)=뱃길로 제주에 다다른 저자는 사서에 언급된 '탐라국'을 살핀 뒤 삼별초의 난, 추자도의 최영사당, 불탑사 오층석탑, 향파두리성 등으로 여정을 이어간다. '목욕의 난'에 관심을 보이며 지금까지 제주를 탐방한 내용을 토대로 쓴 역사 소설 '갑인의 변'도 덧붙였다. 책읽는 고양이. 1만8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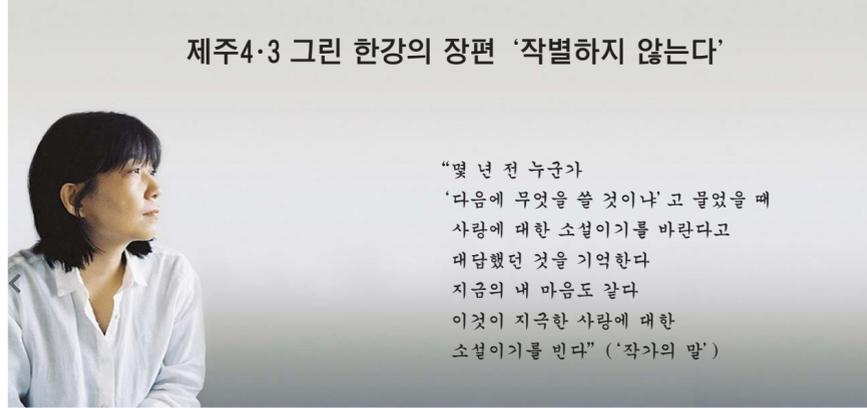
▶요리의 방점, 경이로운 신맛(최낙언 지음)=신맛은 음식의 풍미를 넉넉하게 하는 '턱서리한 맛'으로 다른 맛을 휘어 감는 역할을 하는 알송달송한 신비의 맛이다. '식 품은 과학으로 이해하고, 문화로 소비될 때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저자는 '셰프를 유혹하는 신맛과 산미료의 과학'을 풀어냈다. 헬스레터. 2만5000원.



▶쇼팽의 낭만시대(송동섭 지음)=낭만과 음악을 대표하는 인물인 폴란드 태생의 쇼팽. 쇼팽 위주의 피아노곡을 주로 쓴 쇼팽은 그 안에 세련되고 감미로운 정서를 담았다. 가족, 친구들, 프랑스에 정착한 폴란드 동포들, 살롱을 중심점으로 한 유럽의 귀족들, 연인 조르주 상드 등 쇼팽의 곁에 있었던 이들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들여다봤다. 뮤진트리. 2만2000원.



▶내게도 돌아갈 곳이 생겼다(노나라 지음)= '가장 사적인 한국 여행' 시리즈의 첫 책이다. 저자가 10여 년 전 울진 외갓집에서 할머니와 함께한 1년이 사진과 글에 담겼다. 동해안에 있는 농촌이자 어촌이자 산촌, 강릉이랑 포항 사이에 있는 '미지의 세계'였던 그곳이지만 저자는 이제 삶에 지칠 때면 울진 바다와 계곡, 5일장, 골목길, 동네 곳곳을 지키고 있던 나무들을 떠올린다. 책나물. 1만3000원.



제주4·3 그린 한강의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

"몇 년 전 누군가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의 내 마음도 같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작가의 말')

아직 헤어질 수 없기에, 잊을 수 없기에

"무엇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나. 가슴에 활활 일어나는 불이 없다면, 기어이 돌아가 곁안을 내가 없다면." 그가 5년 만에 발표한 신작 장편소설의 온 마음이 이 대목에 스며있다고 느꼈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로 어제와 오늘을 잇고 있는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이다.



2014년 6월에 이 책의 첫 두 페이지를 썼다는 작가는 2018년 세밑에야 그 다음을 이어 쓰기 시작했다. 이 소설과 작가의 삶이 묶여 있던 시간을 7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뼈와 살에 얽힌 수많은 사연 돌아가 곁안을 사랑 위해 낙인과 공포 속 고요한 투쟁

'채식주의자'로 2016년 인터넷 서널 부커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 (2014), '흰' (2016) 등에 이어 단행본으로 내놓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연장선에서 유려하고 시적인 문장으로 다시 인간의 존엄을 말한다. 오래지 않은 과거에 벌어진 비극적 역사, 제주4·3을 통해서다.

미체형 세대인 경하와 인선 눈송이 매개 공감과 연대로 오래전 먼 곳에도 내렸으리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제주 바다에서, 어느 마을 국민학교 운동장 옆 보리밭에서, 입구가 좁은 동굴에서, 활주로 아래에서 뼈와 살들의 사연을 수없이 마주하게 된다. '4월'로 통칭되는 70여 년 전 그 시기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기에, 주인공 '나'로 나오는 소설가 경하, 4·3에 얽힌 가족사를 안은 술한 제주사람 중의 한 명인 사진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경하의 친구 인선은 꿈과 현실을 오가며 먼저 떠난 이들을 우리 앞에 불러낸다. 미체형 세대인 두 사람은 소설 속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란 다큐멘터리 작업

을 구상하며 때때로 제주 방언으로 전하는 생존희생자들의 음성을 실어나른다.

눈송이는 인선의 엄마 정심이 열세 살 어느 겨울날 군경에 의해 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몰살당한 가족들의 시신을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 비극의 매개로 등장한다. 정심과 정심의 인니는 주검의 일굴 위에 눈송이가 얇게 덮여 얼어 있던 탓에 그것들을 일일이 닦으며 신원을 확인해야 했다. 눈발은 수십 년을 뛰어넘어 다시 제주 하늘에 휘날린다. 목공 일을 하다 두 손가락이 잘린 인선을 대신해 혼자 남은 새를 구하려 인선이 머물

던 제주 집으로 향하던 경하는 눈길에서 생각한다.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은 것이 아니라 법이 없다." 눈송이는 어느새 "이 섬뿐 아니라 오래전 먼 곳에서 내렸던" 존재가 되어 공감과 연대로 확장된다.

소설은 인선의 엄마를 따라 지역 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수감자들이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됐던 1950년 경산 코발트 광산사건까지 닿는다. 이 여정에서 정심이 실종된 오빠를 찾기 위해 길고 고요한 투쟁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난다. 입을 때는 순간 휴전선 너머 적의 편으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오래도록 침묵해야 했던 현실에서도 정심은 오빠와 작별할 수 없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획을 45도로 꺾어서 썼던 정심의 필체처럼 소설 곳곳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 서체로 된 구절들이 자리하고 있다. 정심과 인선, 경하, 또는 증언자들의 목소리로 표출되는 그것들은 작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폭력은 육체의 절멸을 기도하지만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다. 죽은 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 있게 할 수는 있다." (신형철)

한강은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적었다. "몇 년 전 누군가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의 내 마음도 같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문학동네. 1만4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김성호의 '제주지방선거 70년'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과 그 여정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주 지역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읍·면의원 선거는 1952년 4월 25일 실시됐다. 제주에서도 이때 처음으로 제1대 읍의원, 면의원, 도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4·3의 와중이던 당시 도의원 후보자들은 한라산 재산공비(在산公費)의 완전 소탕, 전기와 상수도 시설, 교육시설 확충, 상이군경과 영세민 생활 보호, 면 단위 의료기관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최승만 제주지사가 '혈연과 지연을 떠나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자', '기권하지 말자'고 호소하는 일간지 기고문을 실는 등 선거 계몽 활동도 활발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상실의 시대'는 오랜 기간 이어졌다. 지방선거가 부활한 것은 그로부터 30년 뒤인 1991년이다.

제주 김성호 박사(행정학)가 이 같은 지방선거사를 정리한 '제주지방선거 70년'을 출간했다. 해방 후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첫 지방선거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952년 이후 70년 선거 기록 선거 환경·사회적 이슈 더해 선거 둘러싼 시대상황도 살펴

직전까지의 선거 관련 기록을 담아 '제주지방선거사' (2007)를 냈던 저자는 이번엔 교육 선거를 추가하고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는 등 2021년 상황까지 더해 70년에 걸친 제주지방선거사를 썼다. 2007년 최초의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18년 제7기 원희룡 도정 3년 등을 새롭게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 투·개표를 통한 당락의 결과를 빠짐없이 실었고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벌어졌던 각종 논란과 함께 후보자별 공약을 종합했다. 특히 선거를 둘러싼 시대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거 환경과 사회적 이슈도 다뤘다. 저자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란, 제주해군기지 찬반 대립 확산, 오락가락 제주신공항 건설, 매듭짓지 못한 국내영리병원 허용, 특혜 의혹으로 번진 제주웰스케어타운 등을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친 이슈로 꼽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와 문재인 정부 출범 등 대선 정국의 흐름 속에 해군기지와 2공항 건설이 여전한 이슈였다고 했다. 부록으로 역대 시·읍·면의회 의원 당선자 명단을 수록했다. 내내로전자출판, 4만원, 진선희기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특허 제10-2078975호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팬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받은 바람판 토출구로 인해 사각지대 최소화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셔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